

#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으로!

25일 국악 뮤지컬을 시작으로 재즈페스티벌·성악 콩쿠르 등 하반기 문화공연 '풍성'

순창군이 가을철을 맞아 풍성한 공연을 예고 하며, 문화가 숨쉬는 고장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선보일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5일로 예고된 '빨간모자와 숲속친구들'로 순창군 상주단체인 나니레가 선보이는 국악 뮤지컬이다. 지난 8월 종이컵 인형극에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연으로, 대도시에 나가야 볼 수 있는 공연을 지역에서 볼 수 있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이어 펼쳐질 공연으로 BOMO문화관광연구소 주관으로 전국 인디밴드 단체들과 함께하는 재즈페스티벌이 28일에 열릴 계획이다. 이날 전국의 다수 재즈팬들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지역 상권이 들쭉고 있다.

10월에는 순창의 대표축제인 제14회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해 성악콩쿠르 대회, 순창국악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국악대전, 서울 윈드앙상블의 일반인을 위한 Wind Story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4일과 5일 펼쳐질 성악 콩쿠르대회에는 5일날 본선 입상자들이 펼칠 성악 공연에 전국의 성악 애호가부터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11월 5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극 '만선이' 순창군민들을 찾



순창군 하반기 문화공연 성악 콩쿠르 자료사진.

는다. 특히 출연배우인 지미리씨가 전북 순창으로 귀촌하여 순창군에 높은 애정을 쏟으며, 이번 공연이 성사됐다.

올해 마지막은 순창의 끼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페스티벌'과 전 군민들과 함께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 했다"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2020년에는 일품공원과 중앙로 일원에서 길거리 버스킹도 준비하고 있다"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건설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온가족 함께 즐기는 빛의 축제 '레이저 무브아트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 무대 위 빛의 축제인 9월 문화가 있는 날 '레이저 무브아트쇼' 공연을 개최한다.

레이저를 이용한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LED 트론 댄스, 비보잉 등 특수 장비를 통해 음악과 춤이 결합된 복합 문화예술로서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공연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한정된 스크린의 영상으로만 구현하는 미디어 퍼포먼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레이저로 표현하는 레이저 맵핑소리는 국내유일의 공연 콘텐츠를 갖고 있으며, 이번 김제공연에서는 일반 공연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4Color의 레이저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전개하는 화려한 레이저 애니메이션쇼와 LED 특수 장비를 활용해 트론 댄스가 함께 어우러진 독창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및 비보이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빛과 음악의 축제가 될 것이다.



관람권 예매는 9월 17일 오전 8시부터 김제 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성료...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만들어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김부선)가 최근 '제8회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귀성객들과 동호회 회원, 군민 등 300여명이 한곳에 모여 페스티벌을 축하하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기회가 됐다.

선운음악단, 고창색소폰동호회 등 고창군 11개 동호회단체가 평소에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신나는 음악, 무용공연을 선사했다.

20개 동호회 단체는 공예·미술·사진 전시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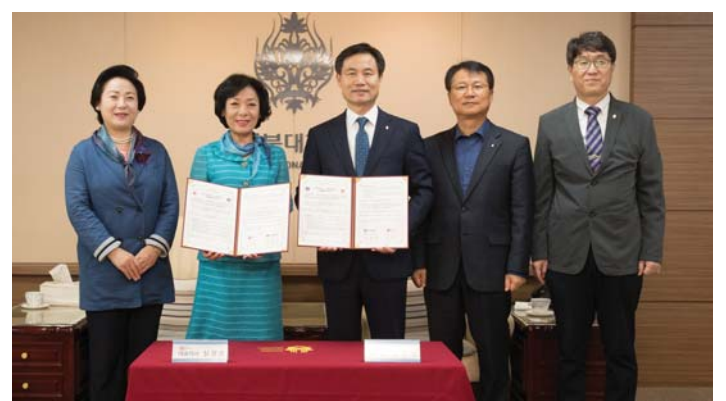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김부선 회장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지역 예술동호회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긍정과 참여의 에너지를 고창군 문화·예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현재 음악, 무용, 전통, 공예, 문화, 사진, 미술, 연극 등 8개 분과, 71개 동호회, 933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면서 지역에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김부선)가 최근 '제8회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열었다.



전북대학교가 삼례문화예술촌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아트네트웍스와 손을 맞잡았다.

## 전북대-삼례문화예술촌 '맞손'

교육 공간 제공·학생 자원봉사 장소 우선 배정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삼례문화예술촌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아트네트웍스(주)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이귀재 대외협력부총장, 심가희 아트네트웍스(주)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트네트웍스는 대학 구성원에 대해 삼례문화예술촌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대학 행사 개최 시 교육 공간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는 삼례문화예술촌 행사 개최 시 대학 후원과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장소로 삼례문화예술촌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부터 양곡창고로 사용돼 온 곳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며 "삼례문화예술촌과 대학이 서로의 발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